



회화 작품:《명(明)》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계열 이야기

하늘이 내린 홍복

명혜 정기 간행물



- "식물인간"이 병원을 나서다
- 완전히 잘린 유방이 자라났다
- 건축 노동자 17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후

제 11 기



그림: 복을 받다

서두 일문	1	선행이 운명을 바꾸어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이 사라지다
선념 득복	3	임종 무렵의 선택
	6	이상한 일 신기한 일
	8	대법 수련, 건강한 몸, 운명이 바뀌었다
인간 기적	11	“식물인간” 이 병원을 나서다
	14	완전히 잘린 유방이 자라났다
행복한 가정	17	우리 집 다섯 송이 자매 꽃
진상 명심	20	파룬궁에 관하여
	22	CCTV, 놀랍게도 “영화를 찍어” 민중을 기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24	운중계도 “귀인”이 찾아와 나를 구해주었다
	28	젊은 부부 “다시 결합”
길연 구명	30	건축 노동자 17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후
	31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비결
심신 정화	32	한국 학교장 우여곡절의 인생

화가 있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는데, 간단한 증상들은 단숨에 사라졌고, 고질적으로 앓던 두통 등은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없어졌다.

수련하기 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었고, 한의사가 맥을 잡으면 오장육부가 다 바닥이라고 하며, 그래서 40이 넘으면 몸이 지탱하기 힘들 거라고 했다. 하지만 수련을 시작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보약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다.

심신의 큰 변화, 사람을 선의로

파룬궁 수련이 최영숙 자신부터 가장 많이 변화시켰다. 그녀는 파룬궁의 주요 저작 《진법륜》 책에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병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도덕의 승화와 몸 건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수련 후, 원래의 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비관적인 마음, 싫은 마음 등 각종 좋지 않은 마음이 짧은 시일에 좋아졌다. 딸이 매우 아파서 엄청 힘들었는데도 신기하게 그 기분에 휩쓸리지 않았는데, 마음은 파룬따파에 대한 감사함에 가득 차 있었다.

최영숙은 줄곧 파룬궁 수련의 “진, 선, 인”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마음 닦음과 연공을 중요시하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더 화목해졌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하여, 직장에서도 순조롭게 교장에 승진

했다.

최영숙은 “파룬궁 수련에서는 진선인에 따라 선타후아(先他後我)를 요구합니다. 늘 나보다는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를 나무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점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수련을 시작해서부터 나는 가정,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늘 제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에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지요.”라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최영숙의 병으로 앓던 어린 딸도 함께 파룬궁을 수련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리홍쯔 사부님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중국 사람도 자유롭게 수련했으면

교육자로서 최 교장은 물질문명에 미실된 인간성 회복에 파룬궁만큼 좋은 게 없다고 했다.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에도 유익할 수밖에 없는 파룬궁이 중국에서는 아직도 탄압이 끝나지 않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파룬궁의 기본 원리인 ‘진, 선, 인’을 좋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교사도 학생도 ‘진, 선, 인’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외면하도록 세뇌한 거죠. 하루 빨리 박해가 끝나서 중국 사람도 모두 마음껏 ‘진, 선, 인’에 따라 자유롭게 수련하여, 건강한 육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도덕도 향상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학교장 우여곡절의 인생

최영숙 56세, 한국 김해 이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다. 사실 최 교장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집안일을 잘 돕는 교직원 남편에다, 입맛에 맞는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 거기에도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들과 어여쁜 딸까지 부족함 없는 가정이었다.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 최영숙은 삶은 평탄하고 즐거워 그녀의 얼굴엔 늘 웃음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14년 전, 최영숙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약봉지를 늘 달고 살다시피 발부터 머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어린 딸까지 재생장애 성 빈혈에 걸려 늘 수혈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고통스러웠다.

최영숙은 당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어린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는 도처에서 의사를 찾았으나, 모두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시중 일관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다.

인생이 바뀌어 기적이 나타났다

2004년의 어느 날, 당시 딸과 함께 다니던 생식원 원장이 심신 건강에 좋다고 파룬궁을 소개하며 딸의 몸에 유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의혹 속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아보게 되었으며 분명히 한 후,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수련의 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수련 후, 그녀의 신체 건강도 뚜렷한 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류가 항상 갈망해 온 것이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음식 영양, 단련 보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옛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던 “마음 닦음과 덕행”이라는 가장 중요한 보건방식을 잊어버렸다. 옛사람들은 천도를 따라 덕을 중히 여기고 선행을 하기만 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려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믿었다.



선행이 운명을 바꾸어 수명을 연장하고 재난이 사라지다

문/즈쥘(智真)

역사 자료에 따르면 청나라 때 첸광성(錢廣生)이라는 상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몸집도 크고 잘 생겼지만, 평시에 사람을 인색하게 대했다. 찻잎 가게를 꾸려 오륙천 냥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큰 부자라고 했다.

하루는 한 관상쟁이가 이곳에 왔는데 그가 신처럼 결단을 내린다고 하여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다. 첸광성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지인 조 씨가 관상을 보고 있었다. 관상가는 양미간을 찌푸리고 말했다. “그대의 관상은 두피가 넓고 산근(山根)이 곧고 높아 원래는 행복하고 장수할 관상입니다. 그러나 검은 기가 양미간을 찢었는데 어떤 나쁜 일을 했었

나요? 한 달 안에 천수를 면할 수 없습니다.” 조 씨는 크게 화를 내며 가버렸다.

첸광성도 자신의 용모를 믿고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관상쟁이는 자세히 살펴보고 말했다: “그대의 상은 몸이 돈독하고 평생 재부를 쌓아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인중(人中)이 짧고 또한 살가죽이 얇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살가죽이 얇으면 인중이 길어도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가죽이 마치 북처럼 돌아오르면 수명은 35세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첸광성은 “올해 35살입니다.” 라고 답했다. 관상가는 “수명이 백 일밖에 안 된다고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사후의 일을 일찌감치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첸광성은 관상 금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와 솔직히 고민했다. “먼저 관상을 본 조 씨의 수명은 한 달 안이라 말했고, 나는 아직 100일이 남았으니 먼저 조 씨가 그렇게 되는지를 보아야겠다.” 고 생각했다.

이 조 씨는 원래 강도현 서기(書吏)였다. 그해 그 지방의 가뭄에 조 씨는 쌀을 구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인가를 허위로 조작하고 구휼 쌀 50여 섬을 잠식했다. 결국, 출처가 드러나 사형을 받아 죽었으므로 관상쟁이가 “한 달 안에 수명을 면할 수 없다” 는 말이 적중한 것이다.

첸광성은 더 걱정했다. 하루는 문득 꿈에서 죽은 하인이 주인은 3일 후에 죽으니 빨리 집안일을 처리하라고 알려주었다.

첸광성은 깨어나서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통곡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와서 이유를 물었다. “생사의 대사는 어쩔수 없는 일이므로 통곡하고 괴로워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요? 소문에 거발선사(巨渤禪師)는 득도한 고승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어서 빨리 그를 찾아가 살길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첸광성은 곧바로 거발선사를 찾아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애걸했다. 선사는: “사람의 생사는 정해져 있는데 어찌 도망칠 수 있는가? 만약 경

건하게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선을 행한다면, 복은 반드시 다 갖추어질 것이니 평소의 악랄함을 인자함으로 바꾼다면 위험한 국면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첸광성은 돌아가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경건하게 신불을 존중하였다.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온전 삼천 냥으로 쌀을 사서 기근을 구휼하며 백성들의 목숨을 널리 구제했다. 그리하여 첸광성은 나중에 과연 재앙이 없었다. 그의 아들들은 부친의 뜻을 따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 신불을 존중하며 선을 행하고 있어 차집 장사가 번창할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소매점을 확대하고 또 큰 포목점을 추가했다. 첸광성은 백여세를 살았는데 백발 흥안이었다. 백세 생일 때, 온 도시 안팎

에 수 천 명의 크고 작은 관료와 신사, 모든 친지들이 축하하러 와서 그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첸광성은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내 수명은 35세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다행히도 고승을 만나, 덕을 쌓아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이제 백여 세가 되었는데도 자손이 가득하고, 재물이 넉넉하니 천지신명의 보우에 감사드려야 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천리를 따라야 하며 항상 타고난 착한 마음을 간직하되 어긋나면 안 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비결



올해, 나는 친구인 양 씨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양 씨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들려주었다: 그의 딸과 남자 친구는 일본 도쿄에서 일을 하며, 한번은 그들이 차를 몰고 외출하던 도중에 차에서 내려 물건을 사러 할 때,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삼퇴”(중공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하면 무사하다고 했고, “중국공산당당” 장자석을 말하고 전 세계 탈당 고조를 말했고, 파룬파파 홍전 세계를 말하며, “파룬파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면 무사할 것이라고 하자, 그들은 “삼퇴”를 동의하고 계속 길을 떠났다.

도중에 차가 갑자기 쿵쾅하는 소리와 함께 심하게 흔들리더니 삽시간에 매우 소란스러웠다. 순간 그의 딸은 “파룬파파는 좋습니다”를 믿으면 무사하다는 이 말이 생각났다. 그들은 즉시 “파룬파파는 좋습니다! 대법 사부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그들이 뒤집힌 차에서 기어 나왔을 때, 놀라서 멍해졌다. 사방이 온통 이수라장이 되었는데, 집이 무너져 내리고... 후에 그들

은 지진으로 쓰나미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오늘 진상을 알려준 파룬궁 수련생이 매우 고마웠다. “파룬파파는 좋습니다”를 믿고, “삼퇴”하면 정말 무사합니다! 사후에 딸은 인터넷으로 양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양 씨 회사의 리강이라는 사람은 듣자마자 “형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다 믿어요, 나는 단원에서 탈퇴하겠는데 파룬에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하자 양 씨는 “좋아.”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서 리강이 양 씨를 찾아와 자신이 큰 재난을 모면했다고 말했다. “요전 날 나는 한 도시로 가는 전동차 기차표를 샀어요 떠나기 직전 갑자기 배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 서둘러 표를 환불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했어요 며칠 후 TV 뉴스에서 전동차 열차가 충돌해 어떤 차 바구니는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는 보도를 보았어요 내가 보니, 환불했던 차가 바로 이 차였고, 다리 밑에 굴러떨어진 차 바구니가 바로 내가 앉으려던 그 차 바구니였어요 어마나, 너무 놀랐어요! 나는 밤새 자지 못하고 겁이 났어요. 그날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저승으로 갔어요! 보아하니 ‘삼퇴’는 정말 무사하네요. 탈퇴한 지 겨우 며칠인데 이 큰 난을 모면했어요”라고 말했다.



건축 노동자 17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후

나는 올해 37세로 료녕성 령원 만원점진에 살고 있다. 2009년, 나는 북표시 보국 옛 제철소 공사장에서 일했다. 그해 가을, 빌딩 시공이 끝났을 때, 나는 다른 4명의 노동자와 탑형 기중기를 내리는 일을 맡았는데, 탑형 기중기 높이가 17m고 우리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한 마디 한 마디씩 분해하였다. 두 마디를 분해했을 때, 탑형 기중기가 갑자기 중간 부위에서 끊어졌다. 우리 다섯 사람은 위에서 떨어졌는데, 당시 나는 매우 질겁했다. 바로 내가 땅에 닿으려던 순간 뭔가가 나를 바쳐주는 것 같더니 쇠골과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을 뿐 나머지는 타박상을 입었다. 하지만 4명의 동료는 현장에서 숨졌다. 나는 재빨리 보국 옛 병원에 보내져 응급 처치를 받았다.

가족들은 전화에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슬픔으로 오열하며 병원 영안실로 갔다. 문지기가 이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앞쪽 병실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듣고 또 우르르 병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내가 두 눈을 똑같이 뜨고 다른 사람과 한담하고 있자 가족들은 그제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말했다: “아이고, 이 녀석 운이 좋았네, 그 높

이에서 떨어졌으니 우리는 모두 너도 떨어져 죽은 줄 알았지.” 나는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라 17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 수 있을까요 그 4명의 동료는 떨어져 죽었어도 내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파룬궁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호신부에는: ‘파룬파와는 좋습니다’라고 믿으면 재난이 왔을 때,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고 적혀 있어요 파룬파파가 나를 구해주었어요!” 말을 마치자 나는 이미 목이 메었다.

이어서 나는 말했다: “파룬궁이 보낸 자료를 나는 모두 열심히 보고, 일찍 파룬궁 진상을 분명히 하여, ‘파룬파와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믿고, 중공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하였기에 파룬파파의 보우를 받았어요.” 이 순간 가족들은 모든 것을 분명히 했고, 파룬파파의 신기함을 목격했다.

병원 의사, 간호사들도 둘러싸고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듣고 모두 감탄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들은 나 산증인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일에서 나는 파룬파파는 최상의 정도 대법임을 깨달았다.



임종 무렵의 선택

나는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바로 내가 중병으로 치료할 약이 없어,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의 선택으로 생명이 전기가 생겼다...

병고에 시달려도 치료할 약이 없다

나의 이름은 리화이고, 올해 57세이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18살인 딸 하나밖에 없다.

2018년 5월, 나의 다리가 갑자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 지역 병원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되었다. 50이 넘는 나는 온종일 침대에서 이리저리 기어 다니며 아파서 엉엉 울었다. 여동생이 나를 동반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이 병원이 치료가 안 되면 여동생은 서둘러 다음 병원을 또 찾았다. 그렇게 “할빈시 의대” 등 7개 큰 병원을 차례로 찾았으나 모든 병원이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진통제만 먹으라고 주었다.

펩타이드 이 약은 돌란틴 다음으로 오장 자극에 특히 손상이 심하며, 의사들은 하루에 두 알만 먹어야 한다고 말한

다. 죽을 정도로 아픈 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이 매일 10알, 20알씩 먹었다. 딸이 걱정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병고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딸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나 어쩔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절제 없이 진통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나의 위, 신장 등에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서는 신장병 증후군 진단을 내렸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병이다. 나는 뭘 먹으면 무엇을 토해 체중이 30~40근이나 줄었고, 자주 까무러쳤다. 어느 병원도 나를 받을 엄두를 못 내며, 내 생명은 언제나 위험하다고 했다. 더는 병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여동생은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 인젠 우리 집에 가서 며칠 있자며 나를 속였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여동생에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고 물었다. 여동생은 나를 안고 통곡하며 말했다. “맞아요, 언니 병원은 오래전부터 입원을 거부했고, 어느 병원도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에 돌아



을 수 있나요.” 나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시종 알지 못했고, 두 다리가 붓지도 않고 부어오르지도 않고 아프기만 했다. 나는 여동생에게 물었다. “알려줘, 나는 어떤 종류의 암 병에 걸린 거야?” 여동생은 암이 아니라고 단언했고, 병원에서는 무슨 병이라고 진단할 수 없었다.

임종 무렵 서광이 비치다

나는 이미 철저히 절망했다. 병세가 심해져 매일 알부민을 맞으며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다.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여동생에게 어서 가서 수의를 사 오라고 했다. 여동생이 사 온 수의까지 입어 보면서 우리 자매는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

나는 나 자신이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친척, 친지들은 모두 임종 인사하러 왔고, 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고, 내 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다. 딸은 울먹이면서 “엄마 죽지 마, 제발 죽어선 안 돼요, 꼭꼭하게 잘 살아야 해요. 엄마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겠나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바보야, 엄마도 죽고 싶지 않고, 네가 아까우나 무슨 방법이 있느냐?”

먼 친척 셋째 오빠가 날 보러 왔는데, 그집 셋째 형수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셋째 오빠가 오기 전에 형수는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소화의 병을 병원에서

는 고칠 수 없으니, 그녀에게 절대로 살아갈 자신감을 포기하지 말고,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해요. 이것은 불법이므로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있어 기이한 효과가 있어요. 역에 달아는 사람이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있는데 많은 암 병 환자,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연공을 하고서 모두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것은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절대 잊지 말고 그녀에게 전해줘요.”

나는 이전에 파룬궁을 믿지 않으면서 또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으니 무슨 병인들 치료할 수 없겠나요. 암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암에 걸린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연공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병원을 해서는 될 하며, 병원이 다 망하지 않겠나요?” 라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병원은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삶의 끝에 다다른 나는 셋째 형수의 당부를 듣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였다. 셋째 오빠는 그들 주변의 불치병, 암 환자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완쾌된 사례를 들려주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사례는 나도 들어봤고, 또 아는 사이기에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셋째 형수가 와서 나에게 연공을 가르쳐 주는 것에 동의했다.



상태로 될 것이에요” 순자 씨는 머리를 끄덕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법륜》 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이 아닌 천서(天書)이고 보서(寶書)입니다. 보고 나서 사부님께서 몸을 맑게 정리해 주실 것이니 구토, 설사 등 약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좋은 일이며, 사부님께서 이미 당신을 책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간 후에 순자 씨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막 집어 들고 보자 그는 바로 끝렸다. 그는 연속 보았는데, 넷째 날엔 정말 토하더니 검은 피를 한참 토했다. 순자 씨 어머니는 남편에게: “텐장이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 책을 보니 정말 형형해요.” 순자 씨는 토한 뒤 “배가 고프다” 며 얼떨결에 일어나 앉았다. 그의 어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만든 것을 그는 다 먹었다. 일주일 후에 순자 씨의 부기가 가라앉아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몸에도 힘이 생겼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

지 못하고 거리로 산책하러 갔다.

게다가 순자 씨 아내는 친정에서 수심에 찬 얼굴로 설도 편히 지내지 못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시부모의 좋은 점만 생각했다.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월 초하루 날, 그녀는 집에서 너무 답답하여 밖으로 나갔는데, 친정 마을에 사는 친척 집에 세배하러 온 시댁 마을의 한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그녀에게 “이제 순자 씨가 나왔어요, 그저께, 나는 그가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보았어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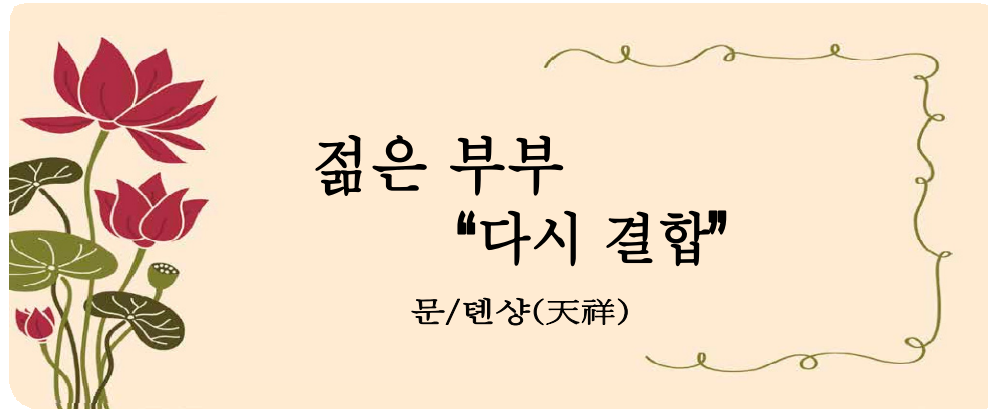
순자 씨 아내는 기쁨에 겨워 즉시 딸을 안고 돌아왔다. 이어 혼수까지 가져와 흠어진 가족이 다시 결합했다. 온 가족이 모두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리며 사람만 만나면 “파룬궁이 구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일가족은 없습니다.”고 말했다.

순자 씨 아버지도 나중에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그 후, 순자 씨 집에는 또 1남 1녀가 더 생겼는데, 가정 형편도 좋아져 일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 인생 여행 중의 복음



질병은 인류가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 되어 왔다. 현재의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질병이 함락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병마에 시달리는 비애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다》 이 책에서 우리는 고질병과 불치병에 걸린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각종 인연으로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 심신이 건강한 행복한 생애를 시작하였다.



젊은 부부 “다시 결합”

문/텐상(天祥)

내 고향은 예동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나는 마을에서 회계사로 일했었다. 같은 마을에 “순자”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1998년 연말 22살인 그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3개월 된 귀여운 어린 딸이 있었다.

유도는 인생무상이다. 음력 선달 초순, 순자 씨의 갑자기 몸이 불편해 시병원에 검사하러 갔더니 요독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병을 고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집에 돈이 없으니 마을 간부에게 부탁하여 2만 위안을 대출받았다. 병원에서 며칠 안 되어 얼마 남지 않았다. 순자 씨의 병세는 여전히 급격히 악화하고 있었다. 의사는 가족에게 “이런 병을 고칠 수 없으니 돌아가서 뒷일을 준비하세요.”라고 말했다. 또 “방법 하나가 있어요. 몇몇 동료에게 들었는데, 파룬궁을 배우면 매우 신기하다고 하니 그가 한번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후,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부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

혼수상태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순자 씨의 아버지는 며느리가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선의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살 것 같지 않구나, 보아하니 열흘 반달 정도인데, 네가 보고 있어도 괴로우니 여기에 같이 있지 말고, 친정에 소식을 전해서 혼수를 되돌려 가져라. 아직 젊을 때, 적당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거라.” 며느리는 딸을 안고 차를 타고 갔다. 떠날 때,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며 눈물투성이 되었다.

며느리가 간 뒤에야 순자 씨 아버지는 “한 번 해보라”는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를 따라 순자 씨 보러 갔다. 순자 씨의 안색은 죽은 사람과 같았고,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부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순자 씨가 깨어나자 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순자 씨, 괜찮아요. 파룬궁이 당신을 구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배우고 연공한다면 반드시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대법을 수련하고 기사회생

셋째 형수는 나에게 당신이 정말 병이 나으려 한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선을 향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수련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는 공법을 배웠다. 나는 매일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연공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셋째 날이 되자 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4, 5일이 되었을 때, 나의 머리, 얼굴, 손, 다리, 발까지 모두 부었는데 이것은 사부님께서 나의 몸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저녁이 되자 나는 배뇨를 시작했고, 부기가 다 빠졌다. 나의 신장병은 깨끗하게 나았다.

4~5개월 동안 수련을 했는데, 나는 약간 알도 먹어본 적이 없다. 위도 안 아프고 밥도 잘 먹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상가도 구경하고, 다리로 아프지 않았다. 아!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 나를 저승사자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나는 파룬파의 뛰어난 신기함을 깊이 느꼈다.

나는 수련이 단지 법을 배우고 연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마음을 닦아야 하며 “진, 선, 인”의 법리에 따라 자

신을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의 불 같은 성격이 화기에 애하게 변했다. 직장에서 경비 청구로 인해, 이전에 나는 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으며 또한 화를 냈다. 수련 후, 나는 명리를 담담히 보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 계속 왕래하지 않던 시어머니 보러 갔더니 시어머니는 감동하면서 울었다.

기연을 소중히 여기고 진상을 알아보다

내가 시골 고향 집으로 돌아가니 누가 봐도 놀라워했다: 어떻게 걸을 수 있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그들에게: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왔어요.”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위해 기뻐했고, 이 파룬파파가 너무 좋다고 했다.

내가 꼭 씨 아주머니 집에 갔더니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울며 말했다: “어디에서도 당신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없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하고 나왔네요. 내 딸도 당신처럼 불치병에 걸렸으나 죽었어요. 이전에 우리도 이 파룬궁이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파룬궁을 날조한 텔레비전의 헛소문만 믿었어요. 안 그러면 내 딸도 연공하여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모두 중공에 속아 넘어갔다. 나는 다행히도 임종 무렵에 과거 파룬궁에 대한 오해를 개변하고 파룬파파 수련을 선택하였기에 살아나 병이 없이 건강하다. 많은 사람이 파룬파파의 진실을 알고, 중공이 주입한 거짓말을 타파하고, 파룬파파를 믿고서 나처럼 운이 좋게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집은 단동 농촌에 산다. 2014년, 우리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나타났다. 연말의 마지막 두 달 동안 30여 가구인 마을에 잇따라 네 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없던 일이다.

마을에 목 씨 성을 가진 한 남성은 58세이고, 힘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다. 총명하고 유능해 삶이 좋았다. 어느 날, 그는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다. 밥 먹을 때 그는 친구에게 오리알 하나를 꺼냈는데, 오리알이 상대방의 손에 넘어가기도 전에 머리가 숙어지더니 죽었다. 모두들 그를 안타까워했다. 아무런 병도 없이 떠나 버렸다.

그 후, 잇따라 세 명이 사망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70여 세이고 가장 어린 분이 52세이다. 또 한 사람이 곧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은 누군지 모른다고 소곤거리며, 자기 차례 일까 봐 두려웠다.

2015년 연말, 판 씨 부부가 싸웠는데 아내는 화감에 친정으로 달려갔다. 올해 54세인 판 씨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으나, 마누라를 못살게 굴었다. 손만 들면 때리고, 입만 열면

욕해 마누라가 몇 번이나 가출했다.

마누라가 친정에 간 이후로, 판 씨는 마음을 줄이며 들어 누웠다. 가슴이 아프고, 밥을 먹으면 토했는데 많은 피를 토했다. 정월 18일, 그는 형에 의해 현 병원에 입원했고,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폐암 말기였다. 그들은 또 도시 큰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 역시 폐암 말기였다. 한쪽 폐는 주먹만 크고, 다른 쪽 폐는 계란 크기였는데 다 썩어가고 폐엽이 그물 같았다.

판 씨는 집안의 기둥으로서 원래 부유하지 않은 데다가 이 병까지 겹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두 딸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을 얼마 써도 상관하지 않았다. 심양 병원에서 다시 단동 병원으로 돌아와 20여일을 묵었다. 아내와 딸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나아지지 않고 반대로 치료할수록 심해져 병원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휴양하라고 권했는데, 후사를 준비하라는 뜻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판 씨가 병원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갔던 사람이 말하기를: 여위어 뼈만 앙상하고 밥을 먹을 수 없고

이상한 일 신기한 일 문 / 청젠 (程建)



왔으며, 23년간 아물지 않던 구멍이 없어져 지금 집 안팎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내 딸은 파룬궁을 연마해 나왔어요”

어머니, 남편, 시아버지는 나의 신기한 변화를 보시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탄복하면서, 더는 중공 사당이 파룬궁에 대한 모함을 믿지 않았다.

나는 친정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나아지자 모두 놀라 하며 어머니에게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딸은 파룬궁을 연마해 나왔어요.”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 비웃었는데, 어머니는 엄숙하게 그들에게 내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몸에서 일어난 기적을 말했다. “내 딸이 연

공 하지 않았다면 살길마저 없어요. ‘백초고’ 약도 준비한 것을 파룬따파가 내 딸의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참 양심적인 엄마입니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또: “내가 직접 보았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약을 먹지 않고 연공 하여 나왔으며, 지금은 집 안팎에서 아무 일도 다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사부님과 파룬따파가 나를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어휘를 다 써도 사부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파룬궁 진상을 알고, 다시는 중공의 거짓말에 속지 말며, 진상을 알면 복을 받으니,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봉쇄를 뚫고 진실세계 찾아

돌파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컴퓨터 버전 <https://git.io/fgp> <https://git.io/umexe>

안타 버전 <https://git.io/fgma>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주의사항

국산 브라우저로 이런 인터넷 주소가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니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의한다.

더 많은 진상을 알려면 파룬따파 명혜망을 방문 www.minghui.org

런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확고한 믿음이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뜻밖에도,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려는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나와 대판 싸웠다. 무슨 나라에서 연마하지 말라고 한다니, 잡담한다니, 이렇게 중한 병이 20여 년간 낫지 않았는데 연공 하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는 각오가 되어 있기에,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연공 하겠다고 고집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화가 나서 나를 말리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며느리의 병은 어차피 고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연공해 보게 놔두어라. 게다가 그들의 연공은 돈도 안 들며, 두 연공자는 밥도 먹지 않고, 갈 때 차비를 주어도 가지지 않았으며, 너한테 바라는 것도 없다.”라고 권유하자 남편은 꺾소리도 하지 않았다.

23년의 골수염, 45일에 회복

다음 날이 되자,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쉴 새 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들이 정말로 연공을 가르쳐 주려 올지를 몰랐다.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집은 여기서 꽤 멀다고 들었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들은 정말 왔으며 게다가 세 사람이 왔다. 마침 어머니도 나를 보러 우리 집에 오셨는데, 연공이란 말을 듣자 그다지 믿지 않았다. 이 몇 년 동안 TV에서 방송한 중공사당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물었다: “내 딸의 병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었는데, 당신들 그 공을 연마하면 나올 수 있어요? 당

신들이 정말 내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나도 당신들과 연마하겠어요”. 세 명의 연공자는 웃음을 짓더니 이어서 나에게 제5조 공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당시 나는 앉아만 있을 수 있고,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우 열심히 배웠고, 그녀들은 셋이 번갈아 가며 한 번 또 한 번 가르쳤다. 몇몇 연공자의 착한 마음이 나를 깊이 감동하게 했고, 수련하려는 내 마음도 확고해졌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전법륜》 등 몇 권의 책을 주면서, 나더러 책을 많이 읽으면 몸이 꼭 건강해진다고 당부하며 며칠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

그녀들이 간 후에 나는 책을 열심히 보며 연공 하였다. 과연 신기한 일이 나타났는데, 내 몸은 하루하루 좋아지고, 셋째 날, 다리는 아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달걀 크기의 상처가 십 전짜리 동전 크기로 변했다.

넷째 날, 그녀들이 또 나를 보러 왔다. 나는 너무 신나서 그녀들 앞에서 한 바퀴를 돌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 법은 너무 신기하며, 당신들이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예전에 속았어요. 진작 당신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겠나요. 이런 좋은 공법을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천 년 동안 보지 못하고, 만 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좋은 법이니, 나는 소중히 여기겠어요.”

끊임 없이 법을 학습하고 연공 하여, 한 달 반 사이에 내 몸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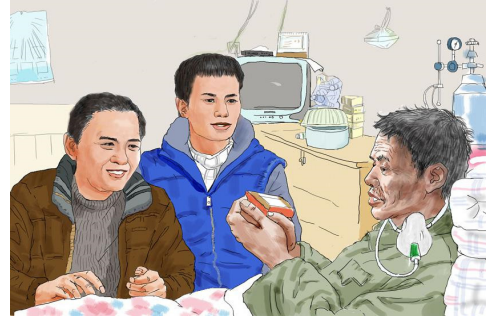
먹어도 가족이 먹여주고, 온종일 온돌에 누워 움직이면 숨이 차서 6일 동안 산소만한 향아리를 마셨다고 했다. 가족들은 남들에게는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지만, 다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며칠 못 살겠다고 의논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다음에 갈 사람은 틀림없이 판 씨이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 한 명과 함께 판 씨 댁에 갔다. 우리는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말해주었는데, 그의 마누라는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고 병이 나아진다면 병원을 해서는 뭘 하나요? 폐가 다 썩었는데 나올 수 있나요? 그녀가 뭐라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선의로 그들에게 파룬궁의 병을 제고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를 알려주었다.

나는 판 씨에게 MP5를 틀어주고, 이것은 파룬궁 수련생의 수련을 체득한 진실한 이야기인데, 당신이 수련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기적이 나타나 당신의 병이 곧 나아질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판 씨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매우 믿으면서 방송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 말할 힘이 없던 데로부터 나중엔 말하고 싶어 했고, 우리가 떠날 때쯤 그는 순조롭게 말했다. 그날 밤부터 산소를 더는 들이마시지 않았고 약도 줄었다.

판 씨는 매일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고, 매일 MP5에서 방송하는 수련 이야기를 들었다. 세 번째 날, 판 씨



는 스스로 밖의 화장실에 갔는데 숨이 차지 않고,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자주 밖에 나가서 산책했다. 또 며칠이 지나자 판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마누라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중에 판 씨에게 음악 플레이어가 있게 되어 자주 파룬궁 진상과 파룬궁 수련생이 부른 노래를 들었는데 그는 아주 흥이 나서 어디로 가든 가지고 다녔다.

판 씨는 흥분하며 나에게: “제 목숨을 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 말하자 나는: 나의 사부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셨고, 사부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성심으로 “리 대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부님께: “리 대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 나는 더는 마누라를 때리고 욕하지 않으며,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 다짐했다.

그 이후로는 부부도 사이가 좋아졌고 가정이 화목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판 씨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고 몸이 좋아졌음을 알고서, 파룬따파가 너무 신기하고, 파룬궁이 이렇게 좋으니, 우리도 읽고 연마하면 “다음”이 누구일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福



대법 수련, 건강한 몸, 운명이 바뀌었다

문/팡옌(方延)

세월은 유수와 같이,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질병에 시달린 쓸쓸함이 많았다. 어머니는 늘 내가 60살에 큰 난이 있다고 점쟁이가 말했었다고 했으나, 48살이 되던 해에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올해 나는 70살인데 건강하게 살아있다 ...

건강한 몸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대여섯 살 이전에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다고 한다. 1950년대 농촌에서는 의사와 약이 부족했고, 게다가 집이 가난해 치료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매번 앓게 되면 오랜 시간을 지속했다고 한다.

7~8세 이후에는 병으로 많이 앓지는 않았지만, 다른 또래 아이들만큼 건강하지 못했다. 1960년, 내가 12살 때, 전국 대기근으로 인해 먹을 식량이 없어 풀과 나무 껍질을 먹으며 살아가야 했다. 밭의 풀을 다 베면 연못의 수초를 베러 갔다.

하루는 내가 연못에 가서 풀을 베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배도 고프고 지치기도 하자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현기증이 나타났는데 하마터면 연못에 쓰러질 뻔했다. 그 후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버릇이 생겨 힘든 일을 하면 마음이 몹시 당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림 등의 심장병 증세가 나타났는데 게다가 심근염에 걸렸다. 39살이 되던 해에 또 간장병에 걸렸는데 현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 성 병원에 가서 두 달 동안 입원해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 퇴원 후에, 한의사를 찾아가 한약을 먹었고, 민간 처방도 써 보았고, 기공을 연마하면서 많은 치료 방법을 썼지만, 간 부위는 여전히 아팠다.

1996년, 동료한테서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과가 특별히 좋다는 말을 듣고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다. 파룬궁 보도소에서 꾸린 9일 공법 학습 반에 두 번 참가했다 — 매일 밤

부둥켜안고 울먹였다: “안 돼요, 난 엄마를 원해요, 난 엄마를 원해요, 엄마가 죽으면 안 돼요.” 아들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에 심장이 칼로 에는 듯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고, 우리 집을 구해줄 수 있을까?” 라고 마음속으로 늘 바라고 있었다.

“귀인이 나타나” 나는 수련에 들어섰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2010년 겨울의 어느 날, 우리 집에 보파리 장사꾼(면바지, 반바지, 양말 등) 두 명이 왔는데, 내가 구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몸의 상태를 물었다. 한담 중에 나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면서 수련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텔레비전에서 파룬궁에 대한 먹칠 선전의 영향을 받아 나는 파룬궁이 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 나에게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히 하는 신기한 효과를 들려주었다. 나는 정말 놀라서 멍했다. 그녀의 수련 전 상황은 지금의 나와 매우 비슷했다. 원래 그

녀도 불치병인 “대퇴골 괴사”로 집을 다 팔고도 치료하지 못했다. 구들에 누워서 사람의 등에 업혀야 했고, 땅에서 기어야 하니, 남편도 그를 원하지 않아 친절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도 더 이상 병고의 시달림을 겪고 싶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도 약을 마시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녀 역시 일곱 살 난 딸이 걱정되었다.

나는 골똘히 들었는데,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고통, 그 심정, 그런 어쩔 수 없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침내 그녀가 한 말을 믿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내 속마음을 다 말했고, 우리 둘의 상황은 정말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바닥에서 두 다리로 정상인과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나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았다. 또 그 두 사람은 나에게 텔레비전에 나온 “천안문 분신자살”은 사악한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연출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것이며, 모두 속임수라고 말해주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살생도, 자살도 죄를 짓는 것인데 어떻게 분신자살 할 수 있나요? 텔레비전이 말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들도 날 속일 이유가 없고, 나한테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당시에 연공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녀들은 내일 와서 나에게 연공을 가르쳐 주고, 나에게 책을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떠날 때, 이것은 불법이라고 알려주면서, 누군가 수





운 좋게도 “귀인” 이 찾아와 나를 구해주었다

중공이 파룬궁을 모독하는 텔레비전 선전의 영향으로 나는 파룬궁을 믿지 않았다. 나중에 파룬궁 수련생이 나에게 진상을 알려주었는데, “천안문 분신자살”은 거짓이며... 그녀들의 선심과 신기한 수련 경험이 나를 수련에 들어서게 했고, 생각지도 않게 막 수련을 한 지 며칠 되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내 이름은 쥐안이고, 올해 42살이다. 내가 18살이 되던 해, 허벅지에 구멍이 났는데, 다방면으로 치료해도 치료가 잘 안 되었고, 나중에 골수염으로 발전했다. 구멍이 생긴 곳은 이미 골절되어 강판을 쳐 달 것만 한 상처가 있었다.

병통을 참기 어려워 농약을 먹고 죽으려 했다

23년 동안 여기저기서 약을 구하려 다녔어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의사는 나에게 모르핀과 같은 진통제만 주면서 이 약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두 알밖에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매일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다. 통증을 참기 힘들 때면, 그렇게 많은 것을 돌볼 겨를이 없

음으로 약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한 번에 여섯 알을 먹었다. 통증을 완화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2010년 겨울이 되어 나는 병세가 심해졌다. 매일 구들에 앉아만 있고, 병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고, 다리의 근육은 심하게 위축되어 매일 남편에게 업혀 화장실에 갔다. 나는 인생에 대해 이미 철저히 절망했고, 더는 병고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가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남편, 시아버지에게 당부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살고 싶지 않아 “백초고” 농약을 마시고 죽을 준비가 되었으며, 약은 내가 벌써 샀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이 약이 매우 독해서 구조할 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남편에게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때가 되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응급처치도 하지 말아요...

후사를 당부한 후,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막 일곱 살이 된 막내아들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니?”라고 물었다. 아들은 듣자마자 나를

2시간 넘게 사부님의 강의를 보고, 공법을 가르치는 비디오를 본 다음, 노 수련생이 연공 동작을 가르쳐주었다.

첫 번째 반에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니와 매일 견지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때로는 가고 때로는 가지 않았다. 학습반이 끝나도 신체적 변화도 느끼지 못했고, 단지 이 공법이 확실히 좋다는 것만 깨달았다.

두 번째 학습반이 시작하자 나는 수업을 중시하였고, 열심히 4일 쯤까지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듣고 있는데 몸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간 부위가 아프지 않았고 심장병 증상도 사라졌다.

나는 매우 놀랐다. 사부님의 강의 비디오를 보았는데 어떻게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병이 없으면 몸이 가벼운 것을 느꼈고, 걸음이 가벼워져 계단을 한걸음에 세 계단을 올라가도 지치지 않고 기뻐했다. 나는 48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과 홀가분함을 체험했고 사부님께서 정말 나의 몸을 정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후, 나를 여러 해 동안 괴롭혔고, 태어날 때부터 의학적으로 근본 치료할 수 없는 피부병——어린병(魚鱗病, 사피증)



도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 때문에 나는 파룬궁은 확실히 일반적인 기공과는 다른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고덕 대법이란 것을 깊이 인식했다.

운명이 바뀌었다

어느 해, 어머니는 나에게: 네가 어렸을 때, 점쟁이한테 갔는데, 네가 45살에 부모상(부친 혹은 모친이 사망했다는 뜻)을 입을 것이며, 60살에는 큰 난이 있다고 했다며 몇 번이고 거듭 말했다. 나는 어릴 때 무신론, 유물론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 사악한 학설을 전문 연구하고 있음으로 주역, 팔괘, 점쟁이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 미신이고 유심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에게도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충고했다. 어머니는 나의 권유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기분이 언짢았다.

사실 나는 어머니의 각별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고 심한 폐 공기증이 있기에 자주 피를 토했다. 나는 집안의 장남이기에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걱정하면서도 나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믿지 않기에 이 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내가 4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일은 나의 사상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 줄곧 믿지 않았던 일이 나의 몸에서 일어났다.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궤적은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

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나를 매우 당혹스럽게, 막막하게 뭐가 뭔지 모르게 했다.

파룬궁을 배우면서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이런 어리둥절하던 것들이 저절로 풀렸다. 나는 삶의 근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파룬궁은 진정한 성명쌍수(性命双修) 공법이며 진정으로 수련한다면 병이 없어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또 수명을 연장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파룬따파가 나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내가 60살에 큰 난이 있다고 예측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는 금년에 70살이다. 파룬따파를 수련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22년이 지났는데 나는 약 한 알도 먹지 않고, 주사 한 대도 맞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만약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지 10년이 되었다, 사부님께서 구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오늘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언어로도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 사람을 구하는 훌륭한 대법이 중공의 악의적인 탄압과 목살을 받고 있는데 천 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세인이 어서 빨리 파룬따파 진상을 알고 하루 빨리 세상을 속이는 거짓 말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만고의 기연을 놓치지 말아요! 자신을 위해 밝은 미래를 선택하세요. 福



선념 특보 파룬따파(파룬궁)는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억 수로 계산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리홍쯔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진, 선, 인”을 근본 지도로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도덕 수준을 승화하는 동시에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뛰어난 기이한 효과를 몸소 실증했다.

파룬따파는 1992년에 전해 나와 세계에 널리 전해지고 있으며 세계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데, 억만 명 생명에 행복과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고덕 대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오늘 날 매개 세인의 복이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는 이 것은 생명의 가장 큰 선념이다.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대법의 복분이 당신의 생명에 펼쳐질 것이며 파룬따파의 복보를 받을 것이다.



요를 들고, 덮으려 하다 다시 멈췄고, 왕진동이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소화 담요를 그의 머리 위로 덮었다. 왕진동의 옷은 큰 불길에 “타”서 너털너털하지만, 두 다리 사이에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병은 새 것처럼 푸르다. (그림 1)

이것은 확실히 영화를 찍어서 죄를 씌우려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더 많은 의문점을 생각해 보라고 일깨워 주었다. 예를 들면: “CCTV 기자”는 격리 옷을 입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고, 마스크, 모자를 쓰지 않고 평복을 입고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를 한 것은 의학 상식에 어긋난다. (그림 2). 텔레비전의 느린 화면에서 류춘링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



거운 물체로 머리를 때려 죽은 것(그림 3), 등등이다.

나는 갑자기 중앙텔레비전이 뜻밖에도 정말 거짓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속았다니,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미 2001년 8월에 국제교육 발전기구(IED)가 유엔 회의에서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우리의 조사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바로 중국공산당 당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또: “중공 당국은 올해 1월 23일 천안문 광장에서의 분신자살 사건을 증거로 파룬궁을 모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분신자살의 비디오 분석에서 옹근 사건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성명했다.

진상을 알게 된 나는 중국공산당이 민중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했다? 책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무엇이 이들 파룬궁 수련생들로 하여금 중공의 잔혹함을 알면서도 천안문에 가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었는가!

나중에 나는 운 좋게 갈망하던 그 《전법륜》을 읽고 인생의 의의를 단번에 깨닫고, 중공이 왜 파룬궁을 박해하는 지도 깨달았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선전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사악이고, 투쟁이기에,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진, 선, 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는 파룬따파를 증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CCTV, 놀랍게도 “영화를 찍어” 민중을 기만

나는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랐고, 고향은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혁명의 근거지였으므로 받은 교육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위대, 영광, 정확” 이었다. 바깥 정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출처는 TV인데, 모든 사유와 판단 기준은 모두 중앙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해, CCTV에서 소위 “천안문 분신자살” 이 방송된 후, 나는 확실히 믿으며 이것이 사기치는 큰 그물이 민중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을 조금도 몰랐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중공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정부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 텔레비전 역시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나는 동료 한 분을 만났다. 나보다 7-8살이나 더 많았고, 부모가 모두 지식인은 그는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고 사유가 치밀한데, 우리 농촌에서 온 사람이 부러워하고 탄복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느 날 동료가 말하기를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북경으로 상방하러 갔다 잡혔다고 했다. 이 소식은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의 머릿속에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와 같은 지식인이 어떻게 파룬궁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런 까닭에 그가 나에게 파룬궁을 언급할 때, 나는 즉시 의문을 제기했고 이

렇게 나는 파룬궁의 진상을 들었다.

그는 나에게 “천안문 분신자살” 허위 사건을 말하며, 그 중의 여러 가지 의문점을 분석하였다:

“천안문에서 분신자살” 하다니? 그렇게 큰 광장에 불이 나면, 경찰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 불을 끌 수 있을까? 오스트레일리아의 《타임스지》(The Age)는: “경찰은 사전에 몰랐으나, 소방 장비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라도 몇 분간의 거리가 있지만, 경찰은 90초 안에 대량의 소방시설을 가지고 화면에 나타났다.” 고 질의를 제기했다.

광장에는 몇 개의 감시 카메라밖에 없으나, 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분신자살 비디오에는 광각 화면이 필요하면 광각 렌즈를 주고 특별 화면이 필요하면 클로즈업을 했는가?

그리고 왕진동 몸의 불은 이미 꺼졌는데, 경찰은 그의 뒤에서 한 손으로 소화 담



“식물인간”이 병원을 나서다

요 몇 년 동안 우리 집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나와 남편은 불치병,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생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놀랍게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은 남편 몸에서 나타난 신기한 일을 말하려고 한다.

식물인간 된 남편, 전문가 속수무책

나는 호남 출신이고, 남편은 원래 호남 장사 철도 기무 단에서 일했다. 1999년 3월 15일 그날, 그는 갑자기 쓰러져 깨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서둘러 그를 철도 병원으로 보내 구급했다.

구급실에서 그는 줄곧 혼미상태로 의식마저 잃은 것 같았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뇌 혈전으로 인한 두개골 내 출혈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응급 처치를 하는 동안, 나의 아들은 지역 병원의 유명한 전문가, 교수를 병원에 모셔다 회진을 했지만, 모

두 구해낼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병원 원장은 나에게: “우리 병원의 심장 뇌혈관 전문의 자신도 이 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당신 남편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최상의 응급처치 시간을 넘겼으니, 무슨 방법이 있겠나요?” 라고 말했다. 어떤 의사, 간호사들은 나에게: 우리 병원의 직원이 이런 병에 걸려 이미 몇 명이 죽었고, 죽지 않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좀 넓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내 남편은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 권위의 결론과 많은 의논에 직면한 나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는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가족이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었다. 이런 일이 파룬궁 수련생 중에는 매우 많다. 남편은 수련을 하지 않지만, 사부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의사에게: “나는 꼭 그를 살려내어 걸어서 집으로 돌아 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전법륜》을 듣고 생명에 기적이 나타나

아들이 병원에서 병간호하는 틈을 타서, 나는 집에 가서 파룬따파 주요 저작 《전법륜》과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가져다, 침대 옆에서 공손하게 《전법륜》을 남편에게 읽어주거나, 사부님의 설법 녹음 방송을 남편의 컷전에 놓고 들려주었다. 동시에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남편을 구해달라고 빌었다. 그동안 기회만 있다면, 나는 계속 이렇게 했거니와 남편의 몸에서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약 보름이 지난 후,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고 점점 발도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이 매우 설렜던 나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그는 희망이 있다! 그 후 그는 매일 달라지더니 서서히 깨어났다. 비록 이 과정이 매우 느리지만, 거의 매일 진전이 있었다.

나는 시간을 쪼개어 남편과 함께 《전법륜》을 학습했다. 또 10여 일이 지나자, 그는 의식이 있었고, 차츰 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 음식을 조금씩 먹을 수 있었다. 또 며칠 후, 그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발음이 분명치는 않지만, 나는 그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그더러 나와 함께



《전법륜》을 읽게 하였는데, 내가 한 구절 읽으면 그도 따라서 한 구절씩 읽으면서 차츰차츰 그의 발음도 뚜렷해졌다. 40일이 되었을 때, 나와 아들이 부축하면 그는 천천히 병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또 병실에서 천천히 몇 걸음 걸을 수 있었다.

남편의 의식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본 나는 매일 그와 의사소통을 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사부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은 사부님께서 주셨으므로, 당신은 앞으로 ‘진, 선, 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면서, 파룬따파 수련자가 되어야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미안하지 않을 것이예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가 마침내 깨닫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은 정말 너무 기뻐다.

남편의 정신이 맑아진 그 날부터, 한 번도 수련한 적이 없는 그가 예전보다 많은 것을 깨닫는 것 같았다. 부단히 법을 배우면서, 남편은 갈수록 파룬따파를 더 믿었으므로 그의 몸의 변화도 매우 뚜렷했다. 같은 병실의 몇몇 환자들은, 처음에는 내가 매일 같이 남편에게 《전법륜》을 읽어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떤 사람은 또 경시하는 표정을

만 아니라 사람을 성실하고 선양하고 너그럽고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1998년 북경, 무한, 대련 및 광둥성의 의학 전문가들이 진행한 5번의 의학조사 결과에서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유효률은 98%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사회에 복익(福益)하다: 1998년 차오스(乔石)와 부분 정년 휴양하고 정년 퇴직한 로간부들이 파룬궁에 대해 진행한 몇 달간의 조사에서 “파룬궁은

국가에든 인민에든 백가지 이로울 뿐한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말에 중앙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제출했다.

홍전 세계: 파룬따파는 이미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세계 여러 민족 민중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는 인류 심신 건강에 대하여 걸출한 공헌을 하였기에 여러 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의안과 편지 3600여 가지를 수여받았다.



미국



영국



홍콩



인도

파룬궁에 관하여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고 하며, 리홍쯔 선생이 1992년 5월 장춘에서 전해 나온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으로서 “진, 선, 인(真、善、忍)”을 근본지도로 하며 5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사람더러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는데 수련자는 좋은 사람부터 “진, 선, 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도덕 수준을 승화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 수련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할 뿐



대만

짓고 있었다. 이제 남편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가 병상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을 때, 주변 환자들의 태도가 모두 변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어떤 사람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법책을 빌려 보자고 했다.

병실 옆방의 남자 심장병 환자는 《전법륜》을 빌려다 연속 사흘 동안 보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그는 퇴원하겠다고 해서: “나는 모두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나는 집에 돌아가 파룬궁을 수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른 병실 사람들도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배우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다.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남편이 왕성한 기력으로 병실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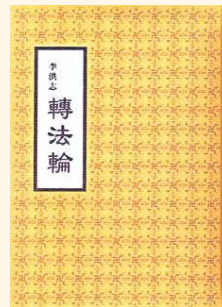
나의 남편은 3월에 병원에 입원해 응급처치를 했고, 5월에 병원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남편은 기적적

으로 회복되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 기력이 왕성한 남편이 웃으며 병실에서 나와 병원을 떠날 때, 매우 많은 의사, 간호사 및 환자가 모두 우리와 작별 인사하러 나왔다. 그 순간, 나의 눈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날, 나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더없이 기쁘고 설렘이 넘쳤다. 남편이 안정적으로 걷는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감개무량했다. 사부님께서 남편에게 두 번째 목숨을 주셨고, 사부님께서 또 한 번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주셨고, 파룬따파의 뛰어난 신의 기적을 인간에 펼쳐주셨다.

남편이 스스로 걸어서 집에 돌아온 것을 본 주변의 이웃, 친구들은 모두 칭찬이 자자했으며, 파룬따파의 신기함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철 같은 사실과 생동한 사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 선, 인은 좋습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전법륜》이 책은 파룬따파의 주요 저작이며, 지금까지 외국어 문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문 서적이다.

파룬따파 창시인 리홍쯔 선생은 이 저작에서 파룬따파 “진, 선, 인(真、善、忍)”의 법리를 논술했는데, 본질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수련자에게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다.



완전히 잘린 유방이 자라났다

문/허평(賀萍)

1994년에 나는 유방암 근절 수술을 받았고, 오른쪽 유방을 모두 제거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오른쪽 유방이 자라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극히 신비한 현상은 현대의학에서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던 말인가?

1994년 4월, 의사가 유방암 진단서를 나에게 보였을 때, 나는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몹시 절망했다.

교수 의사님이 나에게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의사의 안배를 따라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유방암을 잘라내고 갖은 고통을 겪다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는 데 4시간이 걸렸고, 네 번의 절편과 병리검사 분석을 한 후, 즉시 국소 마취에서 전신 마취로 바꾸기로 하고 유방암 근절 수술을 했다. 내 여윈 몸에서 근육과 살가죽 등 조직을 한 대야 벗겨냈는데, 가슴 전체 근육, 오른쪽 유방, 겨드랑이 오른쪽 몸 피부와 뼈 사이의 근육 등 조직을 모두 벗겨냈는데 칼로 22cm 길이를 베었다. 오후 1시에 수술실에 들어가 밤 9시까지 8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얇은 피부와 살을 다 발라낸 갈비뼈 사이는 아물지 않아 매일 고인 물을 뽑아 내고, 또 화학 요법 약물 주사를 맞았다. 육체와 정신의 이중 고

가족인 나는 경찰에게 불려가서 그녀들에게 소위 “권유”를 하라고 하자, 친인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그녀들에게 타협을 권고했는데, 결국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둘째, 셋째 누님은 10여 일 동안 단식을 한 결과 집으로 돌려보냈다. 십여 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뜻밖에도 스스로 짐을 가지고 걸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조차 초췌해 보이지 않았다.

이 일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녀들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어도 자신의 신앙에 먹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신념은 얼마나 확고한가! 이는 얼마나 소중한 고덕 대법 인가! 나는 더욱더 파룬따파를 믿게 되었고 대법이 위대하다고 느꼈다. 나도 몇 자매를 진심으로 탄복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나는 비록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부모, 자매들의 몸과 마음의 큰 변화를 목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동학이나 친구들이 파룬따파가 좋지 않다는 말만 하면 나는 듣기 싫어 언제나 제일 먼저 반박했다: “파룬궁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해 당신들은 알 수가 없으나, 내가 가장 감회가 있고 발언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수련하기 전에 이가 하나도 없고, 비장도 수술하여 제거해 버린 이런 경우에 수련했는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수련 후, 아버

지의 몸도 매우 좋아요. 나는 가족이 수련한 후, 신체의 신기한 변화를 눈으로 직접 보았으므로, 이런 상황을 요해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아마 속을 것입니다.

TV에서 파룬궁에 요언을 날조한 뉴스는 모두 진실이 아닌 백성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은 당신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당신들은 평소 모두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데, 지금의 신체는 어떤가요? 우리 집의 몇몇 노자매들을 보면, 법을 배우기 전에

모두 병에 시달려 바람이 좀 불어도 넘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다섯 송이 자매 꽃은, 바른 믿음을 지키며 모든 고통을 겪었음에도 몸은 매우 건강합니다. 그녀들 중 70에 가까운 이도 있으며 가장 어려도 천명을 아는 나이지만 모두의 얼굴에 홍조가 띄고 몸은 건강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녀들이 파룬따파를 수련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똑똑한가요?” 그들은 나의 이런 말을 듣고 모두 말문이 막혔다.

진상을 알리고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파룬따파에 대한 이 바른 믿음과 확고히 수호하는 태도로 인해 나는 복을 받았다. 몇 차례 위기에서 모두 파룬따파의 보호 아래 나는 위기를 넘겼다.

이 글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해져, 나의 자매들의 경험을 통해, 파룬따파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어, 더 많은 생명이 파룬따파의 찬란한 빛으로 행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해 추석에 온 가족이 부모님 집에 모였는데, 이미 파룬궁을 수련한 셋째 누님, 셋째 형부가 신나서 우리에게 파룬궁을 소개하였다. 셋째 누님이 다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큰 누님, 둘째 누님, 넷째 누님과 두 부모님이 잇따라 수련에 들어섰다. 1996년 말에 우리 집은 봄을 맞이했다...

나는 늘 큰 누님을 놀려주며 말했다: “만약 누님이 그때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흙에 묻혀 절대 오늘까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몇 명 누님의 병도 모두 수련 후, 빨리 완쾌되어 버려진 약도 몇 마대나 된다. 넷째 누님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뒤, 더는 광증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는 집안의 위패를 깨끗하게 치우고, 불태워 버렸다.

무엇보다 안심이 되는 것은 집안의 두 노인의 변화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어머니는 늘 병으로 힘이 없었고, 1,000도의 근시안으로 두꺼운 안경을 걸었는데 물건을 보는 데 매우 힘겨운 데다가 스스로 약을 찾아 먹어야 했다. 아버지 와도 늘 갈등이 생겨, 내가 집에 갈 때마다 노부부가 묵묵히 기 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어머니는 더는 약을 찾아 먹지 않으니, 처음에는 어머니의 몸을 걱정했지만, 후에 어머니가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다. 일자무식하던 어머니는 뜻밖에 《전법륜》책 전체를 통독할 수 있었다! 매번 집에 돌아올 때마다 눈에



띄는 장면이 유달리 아늑했다 — 어머니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아버지는 한쪽에서 열심히 《전법륜》을 베끼고 있었다. 부모 자녀가 함께 모여, 매일 《전법륜》을 학습하고, 연공하고, 수련 체득을 토론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매우 화목했다.

1999년 파룬따파가 박해를 받자, 둘째 누님, 셋째 누님과 다섯째 여동생이 함께 파룬따파의 억울함을 말하러 북경에 갔다가 불 합법적으로 노동 교양소에 붙잡혀 갔다. 파출소에 간헐을 때 매를 맞았고, 또 구치소에서는 밤새 수갑을 채워 난방 호스에 매달아 놓았는데 발끝만 땅에 조금 닿을 수 있었다. 특히 가련한 다섯째 여동생은 어린아이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는데, 사악한 경찰이 그녀를 납치하고는 집에까지 가서 재산을 몰수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얼굴도 멍이 들도록 얻어맞은 며느리를 보고, 애석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악담을 퍼부었다. 나는 노인이 중공 거짓말에 속아 파룬궁을 오해하며 가장 효성스러운 며느리에게 반목하여 원수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쓰렸다.

통에, 게다가 원래 열 몇 가지 질병에 시달려 나는 항상 자신의 인내력이 한계에 이른 느낌이었다. 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고 싶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자신이 마치 늦가을의 낙엽처럼 바람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질 것 같았다.

대법을 수련하고 생명의 기적을 체험

1996년 8월, 내가 병고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아래층에 사는 언니가 인근의 파룬궁 연공 점에 가서 리홍즈 사부님의 광주 설법 녹상을 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정치업무를 했기에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을 때, 사상이 매우 저축됐다. 나는 여러 가지 기공을 배웠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 공이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마음속으로 믿지 않기에 첫 3일간 전혀 마음에 닿지 않았다.

넷째날 나는 일찍 첫 번째 줄에 앉아 사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사부님의 간단명료하고 신비롭고 심오한 설법에 끌렸다: 이 기공사는 어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다른 기공사

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사부님의 광주 설법 비디오를 연속으로 다 보고 몹시 감동되었다. 9강 비디오 학습 반이 끝난 후, 나는 연공 점에서 《전법륜》책 한 권을 가져다 경건한 마음으로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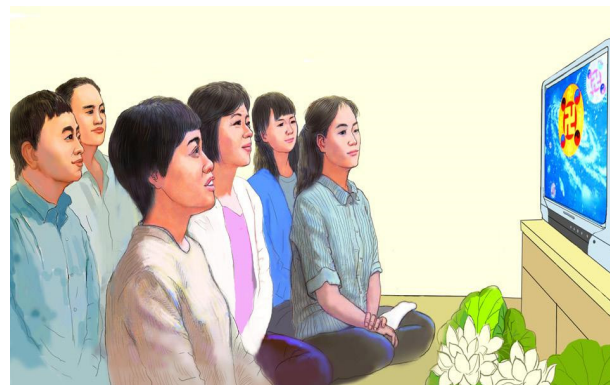
나는 매일 열심히 법을 학습하고 연공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매일 변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약을 버리자 신기한 일이 하나 또 하나 연속 나타났다.

연공 할 때, 나는 파룬이 돌고 있음을 느꼈는데 이것은 사부님께서 나의 몸을 조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른 시일에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편두통, 심장병, 빈혈, 청광안, 류마티스, 신장 기능 부전 등 십여 가지의 질병이 사라져 병이 없으니 몸이 가벼운 느낌을 실감했는데 몸이 가뿐하고 아주 편했다.

연공을 한 후, 내 얼굴의 주근깨, 나비 얼룩도 신기하게 사라져 버렸고, 노랑고 어둡던 얼굴이 흰 바탕에 홍조가 비졌는데 또래에 비해 훨씬 젊었다.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빚 22만 위안을 갚다

나는 매우 열심히 연공하고 법 공부 했는데, 배울수록 파룬따파 법리가 박대 정심하고 오묘가 그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우면 배울수록 생명의 귀착점을 찾은 것이 뿌듯했다. 나는 천천히 세상의 명리를 담당하게 보았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동료는 20만 위안을 빌려 달라고 나를 졸랐는데, 장사를 하겠다며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주



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도와 돈을 빌렸다. 하지만 그의 사업 파트너가 남에게 속은 후 홍콩으로 도망갔다. 동료도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 남겨진 이 빚은 월급쟁이 가정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였다. 하지만 수련 후에 나는 돈을 담담히 보았고, 다시는 예전처럼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매우 화가 나지 않았다. 나와 가족들은 저축한 돈을 모두 내놓고, 금은 장신구를 전당포에 잡히고, 모자라는 것은 친척에게 조금 빌려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22만 위안을 갚았다.

파룬파파는 몇 십 년 동안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며 조마조마해진 나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고 부드럽게 변화 시켜, 오랜 시간 외롭게 떠돌던 나의 선택이 마침내 인생의 귀향을 찾게 되었다.

완전히 잘린 유방이 자라났다

수련을 시작해서부터 나의 도덕이 끊임없이 승화하면서 사부님께서는 줄곧 나를 도와 몸을 조정하고 정화해 주셨다. 가장 신기한 것은 1994년 수술로 제거된 오른쪽 유방이 점점 자라난 것이다. 수련하기 전에 수술 시 대량의 마취약이 체내에 주입되었기 때문에 수술 자리가 아무런 통증도 없었다. 연공 후, 사부님께서 근락, 경락, 칼 자리를 조정해 주시어 점차 칼 자리 주위의 근육이 통증을 느끼고, 잘라낸 통증 신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오른쪽 가슴 크고 작은 근육 자리에 원래 팽팽하게 땅겨진 피부가 차츰 느슨해졌다. 또 얼마

간 지나서 유방에 형태가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어느 날 명치 부위가 느껴지고, 전충혈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등 쪽으로 통하는 곳에도 근육이 생겨 팔과 손으로 물건을 들면 힘이 생겼다. 다년간 감각이 없이 지내온 오른쪽 몸이 눈에 띄게 자라나 왼쪽 상체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홍근은 이미 거의 충만해졌다. 이 극히 이례적인 현상은 현대의학에서 절대 설명할 수 없기에 누구나 모두 기적이라 했다: 불가사의합니다! 파룬궁은 너무 신기합니다! 파룬파파가 현대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친척 친구 백여 명이 수련에 들어서다

내 몸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로 인해 나의 동료, 친척, 친구 100여 명이 잇따라 파룬파파수련에 들어섰으며, 파룬파파가 그들의 몸에서도 기적을 펼쳐 보였다.

당시 나와 한 병실에 입원했던 암 병환자들은 모두 선후로 벌써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살아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다.

지금 70대인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해서 40~50대로 보인다. 친척 친구, 고향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모두 칭찬이 자자하다: “오늘 진정한 파룬궁을 보았고, 파룬궁이 좋고 나쁨은 당신을 보면 분명합니다.” 모두가 유쾌히 진상 자료를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또 공법을 배우려고 했다. 나의 동포 모두가 진상을 똑똑히 알고 복을 받길 바란다.



우리 집 형제자매 7명 중, 다섯 자매가 파룬파파를 수련하고 있다. 남자로서 가정에서 풍량을 겪을 때, 나는 항상 앞장서 활약하였으며, 이로 인해 친척들이 수련한 후의 신비로운 기적을 목격했다.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집 다섯 자매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아주 유명하기에, 모두가 이 다섯 송이는 한 줄기에서 나온 자매 꽃이라고 했다.

몇몇 누님들은 몸 상태가 예전에는 안 좋았으므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린다: 큰 누님은 수련 전에 약단지였는데 20년 전, 시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둘째 누님은 차관판 탈출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직장에도 다니지 못했다. 셋째 누님은 심한 신장병으로 온몸이 떨리고 사지에 힘이 없고, 장기간 요혈로 사람은 비칠거리었다. 넷째 누님의 몸은 별 탈이 없지만. 동물 부체가 몸에 붙어, 좋을 때는 아주 정상이나, 설 명절 혹

은 매년 4월이 되면 미치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헛소리를 하며 방에 있지 않고 늘 밖으로 뛰어나갔다.

명절 날, 이 대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앉으면 환자와 미치광이로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가족이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

뜻밖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의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바뀌었다.

1995년, 건축 부서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셋째 형부가 공사장에서 부주의로 떨어져 허리가 부러졌다.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약이 효력이 없자 그는 기공을 찾기 시작했고 외지에서 돌아다니던 중에 대련에서 파룬궁을 접촉했다. 셋째 형부는 파룬파파를 수련한 후, 그의 허리는 아주 빨리 회복되었다. 그는 이 공법은 병을 제거할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킬 수 있다고 느꼈다. 이리하여 고향에 돌아간 후, 셋째 형부는 그곳 연공점의 보도원이 되었다.